

해녀 생업 문화의 민속지식과 언어표현 고찰

좌 혜 경*

차 례

- I. 서언
- II. 생업 민속의 지식적 가치
 - 1. 생태적 측면에 나타난 지식획득
 - 2. 전통 물옷 제작과 도구 이용에 대한 지식
 - 3. 공동체의 조직과 규약 체계화
- III. 해녀 전승문화의 공간인식과 언어표현
 - 1. 전승문화에 드러난 공간인식
 - 2. 언어표현의 미학
- IV. 결어

I. 서언

해녀에 대한 관심은 여성으로서 어떤 기계장치 없이 맨몸으로 물속에서 인간한계 의지에 도전하여 일하는 이들에 대한 노동적 특성과 그와 관련된 모든 민속 문화현상들에 관한 것들이라고 할수 있다.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계절과 어장의 이용, 물고기 생태 등에 관한 다양한 바다에 대한 지식을 키워왔고 이 지식은 부모에서 자식으

* 해녀박물관 학예사

로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왔다. 우리들은 이러한 지식을 과학적인 지식과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민속지식(folkknowledge)이라고 칭하고 있다.¹⁾

해녀들 역시 신비시되는 초인적인 나잠수 작업, 물질작업에 대한 몸의 기술, 조수의 이용 등 그녀들만의 몸 기술 및 독특한 지식체계를 형성 전승시켜왔다. 또 이러한 생업과 함께 신에게 의지하는 생활에서 생겨난 무속 신앙, 노동과 함께 만들어진 노래, 언어, 공동체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조직 등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고 전승해 온 것이다.

특히 해녀민속의 가치 중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민중들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 민속지식에 관한 것이다.

해녀와 같은 여성 나잠업자는 일본 아마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희귀한 존재라고 평가받고 있다. 나잠업자들의 본포는 제주도, 그리고 “쿠로시오 문화권을 구성하는 동남아시아계의 종족”들이며 “일찍이 일본 열도 해변부를 덮고 있었던 사람들”²⁾이 주를 이루는데 제주 해녀는 그 중심적 위치에 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日本) 후쿠오카 현 겐카이초(玄海町)가네자키(鐘崎)는 일본 여성아마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 아마의 기원을 제주 해녀에게서 찾고 있다. 원양어업으로 나간 가네자키의 어부가 제주도 해녀와 결혼하여 함께 돌아오고, 가네자키의 아마(海女)들은 현해탄(玄海灘)의 여러 섬들뿐만 아니라 멀리 일본해(日本海)의 노토국(能登國)의 와지마시(輪島市) 헤구라지마(舢倉島) 또는 쓰시마(對馬島)의 마가리(曲浦)까지 물질하러 나가서 일본 아마의 원조가 되었다는 설³⁾은 일본 아마와 제주도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1만 5천여 명이 되던 해녀가 현재는 5600여 명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 60-70대가 67%이며 젊은 세대인 30-40대까지는 전체 해녀수의 7%도 채 못 된다. 해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1) 토모야아키미치, 2006, 「박물학자의 두가지 바다 생태 전략 : 특이성과 적응성」, 『濟州海女 : 抗日運動·文化遺産·海洋文明』, 해녀박물관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세계섬학회, 115-116쪽.

2) 田辺悟(다나베사토루) 著, 『日本蠻人傳統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1990.

3) 鐘崎漁業協同組合編, 『範前鐘崎漁業誌』, 1992.

신규 인력의 축소, 3D업종 기피, 고학력, 유년 청소기에 바다에 접할 기회(해녀실습)가 없어 해녀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서 해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업을 바탕으로 한 민속 문화에 대한 조명과 문화의 전승 보존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⁵⁾

본고는 해녀들의 생업과 문화의 지속적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가 되는 민속적 지식에 대한 가치를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생업 민속의 지식적 가치

1. 생태적 측면에 나타난 지식획득

1) 배워 익힌 몸 기술

해녀 물질작업의 특성은 ‘여성’이 ‘물속’에서 ‘숨을 참고’하는 것으로 인간들의 한계상황에 도전해서 행하는 작업이다. 제주 해녀 중 능력이 뛰어난 상군 해녀는 20미터나 되는 물속에서 2분간 작업할 수 있는 초인적인 존재이며,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작업하기 때문에 항상 육체적 한계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만한 물속 깊이에서 자신의 몸이 적당한 수압을 감지하고 잠수하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물질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는 해녀들의 몸 기술에 따른 것이다.

4) 이종만, 「제주해녀 보호,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제주 해녀 삶의 질 향상과 보호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세미나, 2006, p.21.

5) 제민일보,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와 해녀 가치의 보존 전승」, 2006; 해녀박물관 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 『濟州海女: 抗日運動·文化遺産·海洋文明』, 세계성학회, 2006.

해녀들의 물질(자맥질)은 주로 나잠업으로 산소공급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plaining diving이라고 하며 여기서 plaining이라고 함은 단순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물속에서 해녀는 필요한 것들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헤쳐 나가야만 한다. 해녀를 둘러싸고 있는 물은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그녀는 불규칙한 물결과 큰 파도의 흐름에 자기의 움직임을 맞추어야만 하고 부력과 가시성이 변하는 것에도 지속적으로 맞추어야만 한다. 그리고 꽤 속 산소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자기의 위치에서 수면까지의 거리를 가늠해야 한다.⁶⁾

일본의 오사카 테즈카야마학원대학의 고히라유키나리는 남녀 나잠업자 분포에 대한 생태학적 문제의식을 논하는 가운데 나잠업자는 차가운 바닷물에서 장기간 작업해야 하는 추위에 대한 인내력과 수심이 깊은 바다 밑에서 잠수하기 위해서는 강한 고막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 노련한 해녀들은 초보자들에게 물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항목과 물속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표현한다.

“물질은 목숨을 걸어두고 하는 작업이다.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여분의 숨을 남겨서 나와야 한다. 전복이 보이더라도 항상 밖으로 나올 시간을 넉넉히 두어야한다” 등이다.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이나 쉽게 잘 지킬 수 없는 그런 것 들이다. 물질에 임해서 완숙한 해녀가 되기 위한 몸기술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에서, 몸의 체험에서 얻어진 산지식인 셈이다.

생태학적인 측면에서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추위를 극복하는 것은 또 하나의 험난한 과제로 보고 있다. 일본과 주변 지역의 해녀 활동 근거지인 해녀분포 지대(地帶) 선은 8월에 바닷물 수온이 섭씨25도 등온선을 중심으로 갈라지며, 북쪽지대는 일본도서 해안들을 따라 서쪽 방향으로

6) David W.Plath, *Fit Surrounding : Lessons From the Ama.* (환경에 대한 적응: 일본 아마의 경우), 세계잠녀학술회의, 161쪽.

나가서 대한해협 쓰시마 섬을 지나 제주도에 이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 일본은 8월에 수온이 섭씨 25도의 등온선 가까이에서 남성아마들의 작업하는 지역을 여성아마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잠수 활동의 성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여성들이 추위에 견디는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⁷⁾

2) 어장의 숙지

해녀들의 민속지식 중에서 바다 지형에 관한 지식의 습득은 어장을 발견하여 어로활동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전략이다. 바다에서 작업할 때는 자신이 위치해 있는 곳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치 확인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바다 어장의 확인은 육지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바다 속 위치나 상태를 알기 위해 실제로 깊이 잠수하여 지형지물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바다 속에 들어가 주위를 찾을 때는 목표장소를 찾고 바다 밑의 지형과 어패류에 대한 숙지 및 판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⁸⁾

해녀들은 6-7세에 얇은 물가에 물해엄을 배운 후 13세가 되면 완전한 해녀로 태어나서 어장을 익히게 된다. 해녀 사회에서는 능력별로 상중하가 있어서 가장 기능이 뛰어난 해녀들을 상군이라고 한다. 30-40세 이상이 되

7) 고히라유키나리, 「남녀 나잡업자 분포에 대한 생태학적 고찰」, 『해양문명사에서의 잠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 2002, 76쪽. 데이비드 플라스 교수 역시 종종 특별한 체형이 물질에서 유용한데, 일본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피하지방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찬물에서 작업할 때 더 오래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서 남성보다 더 낫다고 인정한다. 흔히 물질 잘하는 남자를 보고 여자로 태어났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물질 작업 능력이 더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앞글, 161쪽.

8) 토모야아키키치, 「박물학자의 두 가지 바다 생태 전략: 특이성과 적응성」, 앞의 글, 116쪽.

면 보통 바다의 지형을 완전히 숙지하고 암초와 같은 지형지물을 터득하며, 해산물 중에서 전복이 있을 만한 곳을 가늠할 수 있다. 자신의 집 마당을 드나드는 것처럼 깊은 바다에 잠수하여 오랫동안 머무르고 많은 양의 해산물을 따올 수 있게 된다.⁹⁾ 그리고 바다 어장에 대한 여러 지식도 완벽히 알 수 있다.

곧 해녀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암초와 같은 바다 지형을 익히고 바다환경에 적응하고 해산물이 있는 장소를 감각적으로 익히고 자신이 작업하는 장소를 인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과 지식 습득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작업이 능숙한 해녀들은 각각의 바다 어장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 특히 해녀 사회에서 가장 값이 나가고 중요시되는 것은 전복으로, 많이 나는 어장에 대한 지식이나 '여'와 같은 바다 밑 암초, 생산되는 해산물에 관한 지식이 생겨 숙지된다. 개별적인 바다 어장에 대한 지식과 명칭들도 해녀 사회에서 관습화되면서 구전된다.

바다 어장에 대한 지식은 누가 가르쳐줘 배운다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터득하는 것인데, 해녀 사회에서는 '어머니는 딸에게조차 전복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바다 어장에 대한 지식은 자신이 물속에서 작업하면서 획득해야만 한다.

해녀들이 가는 해산물에 따른 바다 어장에 대한 지식은 상군해녀들이라면 거의 고정적으로 암기되어 있다.¹⁰⁾

9) 보통 해녀들은 오전 10경에 바다에 들면 점심을 먹지 않고, 오후 4시까지 작업한다.

10) 구좌읍 하도리 서문동의 예를 보면, 해녀회장 윤복희는, '한개창'에는 톳, 우미, 미역, 찌꺼리, 지충, 감태, 소라, 오분작, 전복, 도박, 미역 강추 (우미고장), 돛발 (돛고달), 모작풀, 무늬가 생산되고, '영알'에는 천초, 소라, 전복, 톳이 많이 나지만, 양식장이 생기면서 물건이 없어졌다고 한다. '영숙개'는 천초가 많이 나며, '팬여'는 톳이, '웃주억개'와 '드렛하르방통'은 천초, '고도릿여'에는 소라, '물척여'는 우미, 오분작, 성계, 소라 '버랭이 밧알개', '무두망알개'는 천초와 보말이, '무두망개', '코지박(웃벗는 여)', '굴매기얇는여', '안무두망', '뱀안무두망', '조각여', '무두망목'에는 미역, 천초, 오분작이 많이 난다고 제보했다.

3) 조수(潮水)의 이용

해녀들의 작업은 보통 '물때'라고 하는 간만의 차에 의한 조수에 의해 거의 결정된다. 제주에서는 이를 '물찌'라고 한다.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지역에 따른 조수 이용에 관한 민속이 생겨났다. 물때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적은 제주시 지역은 '조금'부터 '여섯물'까지, 남원지역은 '서물'에서 '여덟물'까지, 성산포는 '조금'에서 '여덟물'까지 작업한다. 이 기간의 조수의 특징은 작업 시에 자맥질했을 때 해녀가 해산물을 발견하고 잠수하고자 하는 정확한 장소에 잠수할 수 있고 조수 간만의 차가 적어 조류의 흐름으로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물위로 올라 왔을 때 짙는 테왁과 해산물을 담는 용구인 망사리가 조수에 흐름에 휩쓸리지 않아서 쉽게 잡은 해산물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조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자신들 어장에 맞게 바람의 방향을 살피면서 작업 일자와 작업 장소도 결정된다.

4) 채취물의 종류와 채취시기 설정

해산물의 생태를 파악하여 잡는 시기를 결정한 것은 기관에 의한 지정 혹은 누구에 의한 지시가 아니다. 요즘은 수산업법 상에서 산란기를 피하고 해산물의 채취시기를 지정하고 있으나 해녀들 생산적인 경험에 의한 생산적인 지식 결정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생산 시기는 어촌계 자체 내에서 자신들의 세시처럼 조정하여 작업에 운용하고 있다.¹¹⁾

11) 구좌읍 하도리 어촌계를 예로들어 채취물의 특성과 채취시기를 살펴보면, 툫은 3월 그믐부터 4월초 채취, 천초는 5월 초순부터 6월 말, 도박은 천초작업이 끝난 6월에서 7월에, 전복은 연중이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산란기를 피하고, 소라는 10월에서 다음해 5월말, 성게(보라)는 2월에서 4월, 해삼은 연중(7월 한 달은 금지), 오분작, 문어는 수시로 한다. 감태는 풍조만 작업하는데, 풍조는 입찰을 해서 상인에게 팔아서 채취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전체적으로 8월과 9월에는 물질 작업을 금하지 않고 농사만 전념한다.

2. 전통 물웃 제작과 도구 이용에 대한 지식

물질 작업시 입었던 전통옷인 ‘물웃’, 바다에서 전복을 따기 위한 빗창, 부력을 이용하여 해산물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짚고 이동할 수 있는 테왁, 딱 해산물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넣는 망사리, 해초를 베기 위한 낫과 호미와 같은 도구들의 변용은 해녀들의 생업과 함께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욕구와 민속지식 총합의 직접적인 결과다.

1) 물웃의 합리성

현재 해녀가 입는 고무 옷이 일본에서 제주도에 들어와서 입기 시작한 것은 1971년경이다.¹²⁾ 처음에는 고무 옷을 입음으로써 오랜 시간 물질 작업을 할 수 있고 깊은 물속에서도 추위와 수압을 견딜 수 있음으로 해서 입는 해녀 스스로도 자원고갈로 입는 것을 염려할 정도였다.

이전에는 소중기(소중이)라고 하는 물웃을 입었다. 물웃이라는 명칭은 해녀들이 물질 작업할 때 입는 옷을 통칭하여 ‘물웃’이라고 한다. 곧 소중이, 물적삼 한 벌이다.

이 옷은 견고성과 더불어 작업 시 능률적이고 편리하다는 평을 받고 있고¹³⁾ 과학적이고 생리적이기도 하다. 소중이인 경우 옆트임이 되어 입고 벗기에 편하며 몸의 체중 변화나 체격에 맞게 조절하는 융통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허리와 가슴의 몸을 감싸주어서 기능성 있는 속옷으로 종종 입었다.

특히 고무옷에 비해 면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들의 건강에도 아주 좋은 편이며 생리 현상을 조절하기에 편리하다. 추위라든가 기온을 체감하기에 용이하고 대소변을 해결할 때 옆트임 가장 밑쪽에 있는 벌모작(단추)을 열면 훨씬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

12) 제주신문, 1971년 4월 28일자

13) 高富子, 「濟州島 女人들의 속옷에 관한 연구」, 『濟州島研究』 제3집, 1986.

초기에는 흰 면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전복을 따는 빗창의 녹이 슬기도 하고, 해초류의 얼룩물이 들고 여성들의 생리에도 옷이 쉽게 더러웠으므로 끈색 물감으로 염색해서 입었다. 해방 후 미군정의 원조물자인 밀가루 부대를 이용해서 만든 소중기는 당시 옷감이 귀해서 버려지는 천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어 입는 지혜를 보여준다.

소중기 위에 흰 무명으로 만든 적삼을 입는데 추위를 막거나, 해파리나 바다 해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자맥질할 때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매나 도련에 끈이나 고무를 놓아 조이기도 했다. 그리고 깃마다 스티치를 놓아 한껏 멋을 내기도 했다. 입는 방법은 소중기 안에, 소중기 밖에 입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짐을 막고 머리를 감싸 물속으로 들어갈 때 머리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머리에 꼭 동여매고 작업하는 물수건, 이마에 두르는 머리띠인 '이멍거리'는 머리카락의 흐트러짐을 막고 상어와 같은 위해(危害) 동물을 물리치는 보신용으로 사용했다.

2) 도구의 창조와 변용

해녀들은 물에 뜨기 위해 짚는 테왁, 채취한 해산물을 담기 위한 망사리(망아리, 망시리, 홍사리, 홍아리), 그리고 전복을 뿔 때 쓰는 빗창과 해산물을 캐는 호미 등을 가지고 잠수를 한다. 그래서 어장실태, 캐는 해산물의 종류, 용도, 각 상황에 따라 물질도구를 이용한다. 이 물질 도구는 해녀들의 나잡 물질을 표상하는 귀중한 생업 도구로 창안해서 만들고 변용하면서 썼다.

빗창과 전복은 해녀를 상징하는 도구다. 전복을 제주어로 '빋' 혹은 '빳'이라고 하는데, 명칭은 전복 따는 창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것으로 30센티 정도의 날카로운 철제 도구다. 해녀들이 짚고 이동하거나 물 위로 올라와 잠시 쉬기도 하는 테왁은 박으로 만든다. 햇빛에 잘 익은 박을 타서 꼭지를 피해 구멍을 낸 후 거꾸로 매단 후 두세 달 지나면, 물이 말라 속이 빈

다. 대막대를 이용하여 씨를 파서 속을 내어 텅 비게 한 후 구멍 낸 곳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막은 후, 테왁에 짚은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네갑 혹은 여섯갑으로 엮는다.

망사리는 미(억새풀의 속껍질)나 신설란 등의 재료를 이용 그물 모양으로 짜서 채취한 해산물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용도에 따라 소라나 전복 등 헛물에 작업시 사용하는 헛물망사리와, 미역이나 천초, 툫 등의 해조류 작업시 사용하는 굵고 영설하게 짠 미역망사리가 있다. 이외에도 '오분자기'와 같은 작은 해산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짠 '조락' 또는 '그물수대'라고 하는 자그만 주머니가 있다.

중계호미는 모자반이나 툫 또는 미역 등 해조류를 벨 때 쓰는 낫 모양의 호미다. 바다에서 날을 뺀 후 철사를 이용하여 묶어 날 끝을 올려서 손잡이에 끼워 잠기게 하여 작업 도중 날이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일반적인 낫(제주어로는 호미)을 변용하여 사용했다.

'호맹이'는 '골각지'라고도 하며, 성계나 문어 오분자기를 채취할 때 쓴다. 밭에서 김을 뺄 때 사용하는 호미(제주어로는 골갱이)와 같다. 긴 것은 문어를 잡을 때 사용하고 짧고 날카롭게 된 것은 오분자기를 잡을 때 쓴다.

1900년대 초 '눈'이라고 하는 수경을 사용하게 된 것은 바다 해산물 수확과 해녀들의 작업에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일본에서 배워 온 장인들에 의해 애월읍 신엄과 구좌읍 한동리에서 눈을 만들어 제주 전역에 판매했다. 지역의 명칭을 따서 '엄쟁이눈', '켓눈'이라고 했다. 해녀들은 습기에 의해 안경이 흐려짐을 막기 위해 쭉을 이용해서 닦았다.

이외에도 테왁이 조수에 의해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망사리에 적당한 크기의 돌을 넣어 닻으로 사용했고, 숨이 부족하여 따지 못한 해산물을 다시 따기 위한 표지(標識)로 '본조갱이'를 사용하는데 전복 껍질을 이용한다. 전복이 있는 위치를 표식했다가 물위로 나온 후 '본'의 위치를 보면서 다시 잠수하여 캔다.

3. 공동체의 조직과 규약 체계화

해녀 공동체를 이끌던 불턱은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고 바람을 피해서 불을 피워 몸을 데우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해녀들의 정보 소통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해녀들 간의 상호 협조를 재확인하고 의사 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물질에 관한 예비지식 교육과 물질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불턱은 원시 회의 문화를 살필 수 있는 원초적인 장소로 보기도 한다.

원시적인 형태의 것은 바람막이 장소 또는 돌담을 사람의 어깨 정도 쌓아 올려서 바람을 막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해녀들이 물질 나간 후에는 작업하는 아내들을 기다리는 남편들의 쉼터이기도 하다. 현대적인 탈의장이 만들어진 것은 1980년대경부터다.

어촌계의 바다 어장 규약은 각 어촌계원의 의무사항이나 어장관리 등의 내규를 정함으로써 해녀공동체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1) 어촌계의 규약

어촌계의 규약에는 해녀회 구성과 운영, 해산물의 금(禁), 해금(解禁)과 관련하여 채취물의 채포 및 금채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고 바다 어장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예로서 과거 마라도 어촌계 규약을 보면 미역은 매년 동지경부터 금채하는데, 음력 3월 15일에 허채기로 하되 형편에 따라서 역원회에서 그 정도를 변경할 수 있다. 미역 허채 시에 대사가 본향 마을에 있을 때는 하루를 연기할 수 있으며 역원회에서는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툫은 매년 양력 11월 30일에 허채한다. 김은 음력 12월 하순에 허채기로 하고 역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모든 해산물의 감시는 반장의 지시에 의하여 역원이 감시한다. 감시 성적 불량 시 향회의 결정에 의하여 보

수를 삭감할 수 있다.

마라도의 거주민은 누구나 다 입어권을 가진다. 마라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라야 미역 채취권을 가지며 부역동원 및 공공시설에 지방부담을 이행치 않는 자는 입어권이 없다. 마라도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자연히 입어권이 허용된다. 처음 입어권을 가질 때는 미역 현물 100근을 내기로 한다.

마라도 주민으로서 타지방으로 진출된 자는 입어권이 없고 또 미역 채취 후 출타하여 거주하지 않는 자는 입어권이 없다. 단 특별한 사인(잠수작업 대기) 등으로 인할 시는 역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한다. 마라도의 입어권자의 명부는 역원회의에서 결정하되 연말 향회에서 이를 발표한다. 마라도의 입어권에서 대리권은 불용납된다.¹⁴⁾

2) 공동 바다어장 관리

공동 바다 어장 관리의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를 제주도 ‘우도섬’에서 찾을 수 있다.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의 해녀 어장은 우도 전역이다. 각 리(里)마다는 어촌계가 있고 그 어촌계에 속한 동 바다에는 자연부락별로 바다어장이 구분되어 있다. 각동에는 어촌계가 수매하는 일을 도와주는 한 사람의 ‘상고’를 지정한 후 해산물을 공동으로 모아 어촌계가 전체적으로 수집, 판매하고 해녀들을 관리한다. 각 동마다에는 바다에 관하여 규약을 정하여 작업하고 있는데, 특히 공동으로 작업하는 바다는 규약이 정해져 지켜지고 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마을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공동바다와 목적을 위해서 바다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기성회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마련했던 기성회 바다라든가 청년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바다, 이장의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한 이장바다 등이 있다

14)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 해녀문화탐방, 마라도편.

Ⅲ. 해녀 전승문화의 공간인식과 언어표현

1. 전승문화에 드러난 공간인식

생업 민속지식과 더불어 생산된 창조적이며 이상화 된 문화 공간에 대한 인식은 다양하게 전개된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해녀 사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으로 '불턱'을 들 수 있다.

또 무속신앙에서 신의 세계와 신의 내재 공간에 대한 인식은 해녀들의 수중 세계에서 행해지는 물질이라는 특성 때문에 새로운 공간인식이 가능하며 세계관 설정도 자유로 왔다.

여성들은 제주 샴머니즘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했다고 할 정도로 무속신앙에 강한 신앙의지를 갖고 있었다. 샴머니즘은 그들이 비교적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기초적인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 샴머니즘이 미신이었던 아니었던 그것은 해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어진 정신적인 무기였던 것이다.¹⁵⁾

곳 의례는 외방세계에서 오는 신을 맞이하고 수중 용궁의 세계를 설정하기도 했다.

1) 무속의례에서의 공간

새로운 공간에 대한 인식은 늘 생활하는 지상 세계의 공간을 넘어서 물속에서 다른 세계를 맛보았던 체험에서 가능했다. 숨을 참아 한계 의지에 도달해서 죽음을 의식하고 작업한다는 점에서 신앙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기원의 대상은 '용왕'이다. '용왕'은 해녀들은 '요왕'이라고 하며 물속에는 용궁이 있고 용왕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데 용궁사상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곧 이러한 세계인식은 그들 자신들의 정신세

15) 히데키 하라지리, 「일본 식민주의와 제주인들의 성에 따른 역할 변화」, 『해양문명사에서의 잠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 2002, 110-111쪽.

계를 보호받는 데 이용되었다.¹⁶⁾

각 해안가의 당신으로 ‘용왕의 말젓딸’이라고 하는 ‘용녀’가 좌정해 있는 경우가 많다. 요왕에게 안전조업과 작업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해녀들은 정초나 영등달에 영등굿 혹은 날을 정해서 잠수굿, 해신제 등을 행하면서 요왕을 모셔다가 제를 올린 후 다시 ‘지드림’을 하면서 기원을 한 후 송신을 한다.

특히 해신국에 대한 인식은 해저에 있다고 생각하는 용공사상과 함께 영등굿 의례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 ‘요왕맞이’ 제차는 무속의례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제차라 할 수 있다. 요왕이 오시는 길을 닦고 맞이하여 환송하는 것이다.

영등굿의 영등신은 외눈배기 섬이나 강남천자국에서 오는 내방신으로 미역씨, 전복씨, 소라, 천초씨 등 해산물의 씨앗을 갖고 와서 제주 바다에 뿌리고 떠난다고 믿고 있다.

실제적인 공간으로 바다 어장과 신앙공동체는 중요한 결속력을 갖는다. 타 지역에서 시집와 물질하는 해녀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가졌던 신앙 공동체를 시집 마을로 이설해 와서 당을 만드는 경우¹⁷⁾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공동어장과 관련된 신앙처가 바다어장의 분할로 분가되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어촌계와 서귀포시 예래동 어촌계의 당 분리에서 찾을 수 있다.

원래 관습적으로 서귀포시 예래동 ‘동난드르’ 해녀와 안덕면 대평리 해녀들은 ‘즈진여’에서 ‘큰코지’의 공동 바다에서 작업을 했다. 현재 예래동 소속의 ‘동난드르’라고 하는 곳과 대평리인 ‘서난드르’가 나누어져서 동난드르 바다가 예래동 어촌계에 속하게 된다.

이곳의 경계인 공동 바다는 기간별로 이용되었다. 예래동의 해녀는 4일을 작업하고, 2일은 대평리 해녀가 작업했으나 대평리 해녀들도 같은 기

16) 히데키 하라지리, 앞의 글, 99쪽.

17) 서귀포시 예래동 어촌계에는 ‘동윗본향당’이 설연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좌나 포선의 동쪽 지역의 해녀들이 이곳 서쪽 지역으로 시집와서 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이설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간 동안 작업하겠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수용하지 못한 예래리 어촌계는 현재 양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분 개통'을 비롯한 '죽진여' 일대를 완전히 하례리에 포함시켜 버린 것이다. 대평리 해녀들은 바다어장 공동작업과 더불어 숭배하던 '대평리 할망당'의 신앙공동체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대평리 해녀들은 예래동 해녀들에게 신앙권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 예래 해녀들은 신앙처소를 잃게 된 것이다.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당을 가르기로 결정하여 현 위치에 모셨다.¹⁸⁾ 물질 생업과 신앙공동체가 같았으나 바다 물질 작업 공동체가 나누어지면서 신앙권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예다.

2) 유토피아로서의 공간

유토피아의 공간은 제주 사람들의 이상향인 이어도 혹은 용궁으로 나타난다. 이어도에 관한 자료들은 구비전승을 통해 이어져왔으며 표류의 역사가 배경이 된다. 남편을 제재로 한 여성들이 부르는 노동요 속에서도 공간이 이상화되고, 전설 속에서는 민간인들의 사고 속에 나타나는 용궁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설정되고 있다.

이어도는 비극성을 바탕으로 소재는 표류와 여인국이 주가 되고 주제는 고통의 비극적 현실과 이상향(낙원)의 지향인 이중적 구조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운 삶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상세계를 만들어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어도라는 이상향의 관념세계를 만들었다.

이어도는 실재하는가 혹은 어디에 존재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제주민들 구전 속에서 어려운 삶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정신적인 고향이다. 이어도는 제주민의 삶이 담겨있고 그 삶 속에서 생겨나 구

18) 2007, 2, 27일 예래동 조사, 구영자(현, 잠수회 부회장)는 원래는 대평리 출신이었다. 바다 어장 분할로 친정 언니들과도 불화를 일으킬 정도로 당을 분가 할 때의 상황이 어려웠음을 이야기한다.

전으로 전승되어 온 일종의 해양문화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바다에서의 조난과 항해에서 남성들을 잃은 여성들이 어려운 삶을 극복하기 위한 부산물로 나타난 섬이 ‘이어도’였고, 또 남편이 편히 가 있는 피안(彼岸)이기도 했다. 이어도는 제주인의 죽음을 통해서 저승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안식처였고 낙원이며 용궁과도 같은 관념이다. ‘낙원’ 곧 유토 피아를 상징하는 이어도 화소에는 ‘이어도’라는 섬은 한번 들어가지만 하면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저승으로 표현된다. ‘이어도’의 문은 저승의 문이요, ‘이어도’ 길은 저승길이며 그곳에는 연꽃이 은은하게 피어 있는 곳으로 묘사된다. 한편, 도민들은 ‘이어도’라는 섬을 온갖 즐거움과 행복이 사시사철 넘치는 낙토로 그리기도 했다.

- | | |
|---------|-------|
| ⑥ 이어도문은 | 이문이어 |
| 이문뒤엔 | 방축이어 |
| 방축뒤엔 | 연꽃이라라 |
| 연꽃귀경 | 좋아라마는 |
| 연꽃귀경 | 흐젠흐난 |
| 못돌아오더라 | |

이어도에는 미역이 많고 전복이 많아서 해녀들은 전복과 미역을 캐다가 자식을 공부시키는 근면한 생활상을 자신들의 노래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

- | | |
|--------|------|
| ⑦ 점복한 | 이어도 |
| 매역한 | 이어도 |
| 점복이영 | 매역이영 |
| 혀여당 | 우리아들 |
| 공부시기키어 | 이어싸나 |
| 이어도가자 | 이어도 |

지난 날 제주도의 남정네들은 진상품이나 상품을 싣고 가다가 거센 태풍을 만나 바다가 사나워지면 이 '이어도' 섬 주변의 소용돌이치는 물결에 배가 휘말리어 들어가 여지없이 배가 파선되고 몰사되는 일이 거듭되곤 했다. '이어도' 주변 바다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 남편을 잃은 제주의 여인들로서 '이어도'는 원한의 표상이요, 뼈가 깎이는 애통의 상징이기도 했다. 따라서 제주도 여인들은 '이어도' 민요를 애뜻하게 부르면서 그들의 쓰라린 마음을 달래어 왔다.

이어도 전설과 관련한다면 '남편이 없는 여성'(寡婦) 혹은 홀로 사는 외로운 처지의 여인들이 찾는 이어도라는 섬은 현실적으로는 비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민요에서는 바다를 생업 기반으로 살아가는 남성들의 조난(遭難)으로 여성이 겪는 '지극한 고독'과 같은 '눈물의 원천'으로서의 이어도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이엿문은	저승문이어
이어도질은	저승질이여
가난을충	몰르더라
신단보선에	불받아놓곡
입단옷에	풀훅여놓앙
애가카게	지들려도
다신을충	몰르더라

여성화자가 말하는 이어도의 문(門)은 '저승문'이고 남편이 간 길은 '저승길'이다. 곧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은 부재한 남편이 가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3) 성소로서의 공간

제주도의 각 해안 지역에는 해신당, 개당, 돈짓당, 남당, 할망당, 본향당의 형태로 무속의 성소가 있다. 자신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장소다.

물론 이곳에서는 ‘긷’이라는 무속의례가 정월달과 영등달 그리고 제일에 맞추어 치러진다.

좌정한 신 역시 대부분 바다의 용왕 또는 요왕(우도면 영일동, 비양동, 오봉리, 하우목동 등)이 좌정하거나, 용해국대부인(제주시 용담동 7시락당), 용녀부인(제주시 내도동 두릿빌레당, 성산읍 신천리 고척당) 남당할망(제주시 외도동 남당할망당)이고 선왕이 함께 좌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신화나, 전설, 무속의례 속에서 공간은 과학이 발달된 현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속되고 있으며, 아직도 그 공간은 성소와 이상세계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수중의 세계에 있다고 믿는 용궁에 관한 전설 속에 잘 나타난다.

○ 괴이한 소문

모슬리에 한 잠녀가 있었는데 아직 마마[痘]를 겪지 않은 사람이었다. 금로포(金露浦)를 지나가다가 바다거북[玳瑁] 하나를 발견했다. 물이 말라 있는 곳에 있기에 이를 붙잡히 여겨 그것을 바닷물예다 놓아주었다. 거북은 유연하게 헤엄쳐가면서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양을 하였다.

후에 용두암(龍頭巖)에서 전복을 캐는데, 물에 들어가 조개를 보았는데 빛이 반짝거리 보석꽃의 빛이 찬란한 가운데 한 노파가 있었다. 나를 반가이 맞으며 고맙다면서 말하기를, “그대는 나의 아들을 살려주어서 그 은혜에 감사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꽃 한송이를 꺾어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마마[痘]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물에서 나와 그것을 보았더니 바로 산호꽃[珊瑚花]이었다. 과연 늙어죽을 때까지 (마마에 걸리지 않고) 효험이 있었다.¹⁹⁾

19) ‘奇聞條(李源祚『耽羅誌草本』)

慕瑟里有一潛女未經痘者也往金露浦見玳瑁在澗水中憐之放諸海水悠然而逝如有拜謝之狀後採覓於龍頭巖下水則見貝闕照耀琪花爛熳中有一老嫗迎謝曰君活我子感恩無地遂折一枝花贈之曰持此可免痘出水視之乃珊瑚花也至老死果驗(李源祚『耽羅誌草本』(影印本)(濟州大學校出版部, 1989, 174쪽.)

2. 언어표현의 미학

힘난하고 고통스런 삶을 바탕으로 생겨난 여러 문화 현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전설과 민요다. 전설에서는 해녀의 영웅담, 보은담, 이상향에 대한 서사적인 스토리가 전개된다. 원시어업노동요인 '해녀노래'에서는 노동기능과 함께 해녀들 공동적인 정서가 표현된다.

1) 노동요의 미학

고달픈 삶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은 민중들 지혜의 산물이다. 전설이나 속담 등 자신들의 생업과 정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지만 늘 접했던 민요 속에서는 고난의 삶을 해학적으로 처리하여 표현하곤 했다. 언어 표현은 곧 삶을 승화시키는 진실된 방법이며 건강성의 표출이다.

해녀노래에는 노동의 기능성과 함께 언어적 표현이 잘 나타나고 있다. 노동기능은 곧 해녀 노젓는 작업상황 표출과 더불어 시·공적 표현 및 노동의 목적 그리고 자신이 짊어진 비극적 인생관이나 세계관, 노동의 기백과 의기, 기원과 신앙이 주를 이룬다.²⁰⁾

물로나벙벙 돌아진섬에(물로 빙빙 에워싼 섬에)
삼시끓영 물질호영(세끼니 끓어서 물질을 해서)
한푼두푼 모은금전
정든님 술값에 다 녹아간다

제주섬중 제주돌양(제주섬을 겨우 돌아서)
조반정심 끓우멍 버은금전(아침 점심 끓으면서 번 돈이)
조반날에 임의나(아침 날에 임의)
술값에 다들어가더라(술값으로 다치른다)

20) 좌혜경, 「해녀노래의 노동기능과 정서」, 세계잠녀학술회의, 『해양문명사에서의 잠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 세계섬학회, 2002, 186-191쪽.

손은보난 쇠스랑뒤고
발은보난 곰베발이 뒤엿고나
입은보난 작박보리
눈은보난 곰박눈이 뒤엿고나
삼단같은 나의머리 다부속이 뒤엿구나

자신의 신세를 표현한 윗 노래의 특징으로는 고통과 시련, 억압과 어둠, 슬픔과 한이 아닌 골계와 해학을 꼽을 수 있다. 자신의 외모를 농사용 도구에 비유해서 해학적인 표현을 했다. 노래를 듣는 청자는 불쌍한 처지에 동감하면서도, 동정을 하지 않고 웃어버린다. 손은 쇠스랑(거름이나 흙을 파는 삼손이), 발은 흙덩어리를 부수는 곰베(곰방뻬)가 되고, 입은 작박보리, 눈은 곰박(나무 국자)의 눈, 머리는 다부속(홀트러진 머리)이 되었다는 것이다.

요눗뎡이 뒤을먹고
등긱등긱 솔찌신고
벼름통을 먹엿던가
구름통을 먹엿던가
등긱등긱 잘올라온다

우리배는 잘도간다
벳또롱알을 놈을준덜
요네착을 놈을주랴

뱃전에 올라오는 파도의 모습을 바람과 기름을 먹어서 올라오는 모습에 비유하면서, 배 밑은 남을 주지만 이 노는 누구를 주겠느냐고 반문하고, 자신이 젓는 노는 썩은 나무 덩치로 만들어져 만약 노의 상착이 끊어지면 가시나무가 없겠는가라고 반문한다.

2) 생업지식의 언어적 표현

해녀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된 지식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생업담에서 잘 표출되고 있다. 해산물의 생태와 더불어 자연의 철리를 깨닫고 자신들의 삶의 지침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 해산물의 생태

해산물의 생태에 관한 생업담은 그들이 직접 경험에서 얻은 지식으로 자신들이 삶의 교훈으로 남는다. 예를 들면 “늑은 생복 트민 좋지 아니헌다”는 속담은 전복은 생태적으로 낮에는 바위에 붙어 있다가 밤이 되면 이쪽저쪽으로 날아다니는데, 해녀들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붙어 있는 전복을 떼는 것이 도리임을 강조한다. 또 전복은 가을이 되면 산란기이기 때문에 물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마치 조 이삭을 보러 온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 7실 들어가민 전복이 우터레 솟아 : 가을이 되면 전복이 조코고리(조이삭)을 보려고 위로 솟아오른다고 한다. 이를 ‘솟임 전복’ ‘솟는 빗’, ‘솟임 빗’이라고 한다.

- 7실 고통광 생복은 우터레 올라온다 : 가을 소라와 전복은 위로 솟아오른다.

(2) 인지

생업담은 해산물의 생태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지식을 얻어서 생산력과 또는 기술과 같은 생업에 관한 지식으로 삼는다. 이러한 인지된 지식체계와 기술 등 어촌민의 습속이나 선협지식 등은 공동체의 지식으로 남게 되는 경우다.

- 물질랑 쌀물에 흐곡, 케기랑 들물에 나끄라 : 쌀물에는 물질하고, 고기는 들물에 낚아라.

- 케기도 잡는 바둑에 가사 잡나 : 바다 물고기도 잡는 장소에 가야 잡을

수 있다.

- 삼월보름 물썬 도독질 생각나민 집에든다 : 삼월 보름 물썬 때에는 도독 일을 하려고 집에 든다.

- 서물사리 퀘기 안 문다 : 서물 물썬에는 고기가 물지 않는다.

- 돌지기 반 든물, 돌ტი기 반 든물 : 달지기에 반 든물, 달뜨기에 반 든물

- 보재기 삼대민 조상을 물에 녹진다 : 어부일을 삼대 켜하면 조상을 물에서 잃는다.

- 술일에 눈 맞추민 머정 좋다: 개날에 물안경 맞추면 머정 좋다

3) 예조

해산물의 풍흉을 점쳐 그해 농산물의 풍흉을 예언하는 생업담이 나타난다. 반농반어의 삶을 영위하던 해녀들인 경우 농사짓는 밭이나 바닷속의 어장도 같은 개념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이나 물질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나머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예언하고 미리 대처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겸손의 미덕을 배우기도 했다.

- 밀메역 하영난 거 보난 보리7실 상거로우켜 : 밀메역(음력 2-3월 베어낸 뿌리에서 새로 나온 미역)이 많이 난 것을 보니 보리 수확이 흉년이 들겠다.

- 메역 조민 그해 승년진다 : 미역이 좋으면 그해 바다 곡식은 흉년이 든다.

- 정각 하영 나민 그해에 태풍 분다 : 청각은 음력 4월 안팎이다. 청각의 흉풍으로 그 해 태풍과 같은 일기를 점치는 것이다.

- 바룻 좋은 해 용시 좋다 : 바다의 해산물이 풍년인 때에 농사도 풍년이다.

- 바룻이 요마사 7술도 용나 : 바다 해산물이 살찌야 가을도 풍년이다.

4) 인생사

속담에서는 결국 자신들의 삶과 연결된 인사(人事)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자연을 빌려서 사람살이나 인간들의 삶을 주로 표현한다. 자신들은 해녀의 생업을 영위하면서 체험과 경험에서 쌓인 공동의 정서도 표현한다.

- 먹는 물에 돌 대끼민 저승가민 눈썹으로 다 건져사 한다 : 음용수에 돌을 던지면 저승에 가면 눈썹으로 다 건져야 한다. 음용수 관리를 잘 하라는 뜻이다

- 써는 물 시민 드는 물 싣나 : 물이 썰면 밀물이 있다는 것은 인생에도朝夕之變의 변화가 있다.

- 천동 우렁 비갠 날 시멍 바람 불엉 절갠 날시라 : 천둥이 쳐서 비가 갠 날이 있으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잔잔한 날이 있겠는가, 모든 일에는 원인과 징조가 있다는 표현과 함께 이어서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기 위한 정서 표현인 “원진 돌밤 붉은 날시멍, 이내 가슴 흰흔 날시랴”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 싸고 싸는 물찌에도 좃돔바리가 흐나: 아무리 좋은 물찌라도, 재수가 없으면 변변치 않아 해녀들에게 있어서도 그날에 따라서 해산물을 잡을 수 있는 운수 곧 머정이 있어야 하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자신의 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다.

- 물척만이 공흔 거시냐 : 바다 속 해산물만큼 공것은 없다라는 뜻으로, 해녀들은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은 자신들의 노동력에 의해 만들어진 공것이라고 여긴다.

- 구쟁기 똥누레간 사이 거들레기(거들락지) 집츠저 : 소라 똥 누러간 사이에 집게가 집을 차지한다. 사람 사는 모습을 해산물의 생태를 빌려서 표현했는데 주인과 나그네가 전도된 상황에 대한 것이다.

IV. 결어

여성 나잡업자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해녀문화와 직업의 지속적인 계승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해녀는 제주를 상징하고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생업의 소중함과 함께 문화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일본과 제주를 비롯한 한반도 전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해녀들은 여성이면서 바다 속에서 물질하며 인간의 한계의지를 극복하고 자연에 적응하며 순용해왔다.

해녀들은 전통 생업 속에서 민속지식이라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의 지식들을 발전 전승시켜왔다. 추위를 극복하고 바다 속에 들어가 바다생태에 적응하면서 몸을 숙련시켜 잠수 기법을 익히고 육지부의 밭을 이용하는 것처럼 바다 어장을 숙지하고, 해산물에 대한 지식을 늘리며, 조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방법을 터득, 주기적으로 조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며 채취시기 등 생태 시스템을 완성했다.

지연, 혈연에 따른 상호 협동조직인 어촌계의 관습과 규약은 해녀 공동체의 영위, 해녀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 해녀회의 구성과 운영, 해산물의 금·해금과 관련된 채포 및 금채에 관한 사항과 바다 어장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규약은 위협을 무릅쓰고 물질하는 해녀사회를 이끌어가는 근간이 되고 있다.

해녀들은 전통의 물옷을 제작하고 도구를 제작 사용하였는데, “물옷은 작업시 능률적이고 생리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과학적인 작업도구를 창조하고 변용하였다. 테왁과 망사리의 크기와 용도가 다른데, 이는 채취하는 해산물의 종류에 따라 창안된 것이다.

옷 제작과 도구 이용에 대한 지식 역시 해녀들의 생산관련 지식이다. 해녀들의 전통 옷인 물옷, 바다에서 전복을 따기 위한 빗창, 부력을 이용하여 해산물의 무게를 지탱하면서 짚고 이동할 수 있는 테왁, 딱 해산물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넣는 망사리, 해초와 해산물을 따고 베기 위한 낫과 호

미와 같은 도구들의 변용은 해녀들의 생업과 함께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욕구에서 생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해녀들은 노동 작업의 위험성으로 공동으로 작업하고 몸을 데우고 옷을 갈아 입는 불턱에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물질에 대한 학습, 해녀들 간의 상호협조, 의사 결정 등을 재확인하면서 자생적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불턱이라는 장소는 원시 회의 문화를 살필 수 있는 원초적인 곳이라 할 수 있다.

무속신앙에서 신의 내재 공간인 해신당과 용궁, 이어도 등의 공간은 수중 세계에서 물질 작업하는 특성에 연유된 것이어서 새로운 공간인식을 하게 되고 공간 설정도 자유로웠다. 특히 해신궁에 대한 인식은 해저에 있다고 생각하는 용궁사상과 함께 영등굿과 잠수굿 의례에서 찾을 수는데, '요왕맞이' 제차는 신이 오시는 길을 닦고 맞이하여 환송하는 연희적 표현이 주가 된다.

또 이어도라는 이상향의 관념세계를 만들어 현실적인 고난을 극복하려고 했다.

언어 표현은 곧 삶을 승화시키는 진실된 방법으로 해녀들의 노래나 전설, 생업담이 주를 이룬다. 특히 노동요인 '해녀 노젓는소리'에는 삶의 건강성이 표출되고 해녀 노젓는 작업상황 표출과 더불어 시·공적 표현, 노동의 목적 그리고 자신이 짊어진 비극적 인생관이나 세계관, 노동의 기백과 의기(義氣), 기원과 신앙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생업 지식이 속담과 금기담을 통해 언어로 표출되었다.

- 핵심어: 해녀, 민속지식, 어촌계, 무속신앙, 이어도, 해녀노래, 생업담

<참고문헌>

- 高富子, 「濟州島 女人들의 속옷에 관한 연구」, 『濟州島研究』 제3집, 1986.
-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 세계잠녀학술회의, 『해양문명사에서의 잠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 세계섬학회, 2002.
- 정광중·좌혜경, 『바다를 건넌 조선의 해녀들』, 각, 2004.
- 좌혜경외, 「제주잠녀(해녀)의 해양문명사적 가치와 ‘해녀학’ 정립가능성 모색: 문화비교론적 관점」, 학술진흥재단연구보고서,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04.
- 좌혜경외,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 제민일보사,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등재와 해녀 가치의 보존 전승」, 2006.
- 제주해녀항일투쟁사업추진위원회, 『濟州海女抗日鬪爭實錄』, 1995.
- 도모야아키히미치, 「박물관학자의 두가지 바다 생태 전략: 특이성과 적응성」
해녀박물관 개관기념 국제회의, 『濟州海女: 抗日運動·文化遺産·海洋文明』, 세계섬학회, 2006.
- 鐘崎漁業協同組合編, 『範前鐘崎漁業誌』, 1992.
- 李善愛, 『海を越える濟州島の海女』, 東京: 明石書店, 2001.
- 田辺悟, 『日本蠻人傳統の研究』,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1990.
- 野村伸一, “아마의 生活史序說”, 『해양문명사에서의 잠녀의 가치와 문화적 계승』 제1회 학술회의 발표요지집, 2002.
- 金榮·梁澄子, 『海を渡つた 朝鮮人 海女』, 東京: 新宿書房, 1988.
- 榎田一二, 「濟州島海女」, 『榎田一二地理學論文集』, 東京: 弘詢社., 1976.
- 渡部文也·高津富男, 『伊予灘漁民誌』, 愛媛縣 文化振興財團, 2001.

<Abstract>

Folkknowledge of Jeju's Women Sea Divers

Choa Hye-kyung

The diving that is carried out by the women sea divers is something that challenges the very limits of human capacity. They dive into the sea without the aid of any mechanical devices making it environmentally friendly with a feminine touch. It is also an exemplary model of gender equality. They are able to systematize their unique ethnic knowledge which is a product of their culture.

The women sea divers literally train themselves with the diving skills while carrying out their superhuman diving work. At the same time, it is essential for them to calculate their diving time, thus detecting the appropriate water pressure for the exact water depth.

Appropriate geographical knowledge is created depending on which area is passed down accordingly. It is only at the time when there is the least amount of difference in tides that the women sea divers can dive at the exact location to catch the sea produce and not be hindered by the flow of the currents during their work.

The women sea divers strictly adhere to a designated time schedule. That is, they dive during the period of the 'neap tide to the da-seot-mul (referring to the 13th, 14th, 28th and the 29th of the tide schedule)' or the yeo-seot-mul which refers to the time from the 8th to the 13th or from the 23rd to the 28th for a total of 6 days of the lunar calendar. The western side of the island delays their work schedule for a day, and the calculation of the diving time is different for different parts of the island. The beginning and ending times for

the diving changes accordingly.

The types of sea produce and its collection period is based upon the accumulated knowledge of how much is produced at what time. They observe the state of the sea produce they want to catch, and carefully decide upon the best time for them to be caught. They avoid the spawning season and employ the almanac system in their work operation.

In Jeju, there are approximately 100 fishermen's co-operative organizations that exist in units that belong to Fisheries Cooperatives. Each fishing cooperative establishes the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women sea divers: their methods and licenses for catching fish, the time and type of catch, the fishing period, and the prohibited fishing period.

The best possible alternative for women sea divers is to find the appropriate location first, whereby they can carry out successful sea produce procuring activities. Then, they can isolate their intended location. It is important for them to have a grasp of the local topography as well as the ability to distinguish the different fish and shellfish.

The women sea divers get to know their workplace and become attached to it by diving into the water and learning the topography such as reefs, adapting to the sea environment, and accumulating their knowledge about the sea. In the case of exceptionally good women sea divers, their knowledge about sea produce is literally at their fingertips.

The management of the fishing ground is carried out in collaboration by the fisheries cooperatives and the women sea divers. They are sometimes managed according to the procurement and usage such as the 'Gongdong Badang (publically used sea)', 'Hakkyo Badang(for the building of a new school)', 'Cheongnyeon Badang(to raise funds for the youth association)', 'Halmang Badang (in consideration of elderly

women sea divers)', 'Yijang Badang(to come up with the village chief's activities) and so on.

This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locations to maintain the women sea divers' community. It is a place where the women sea divers change their clothes, warm themselves, exchange information, conduct general meetings, teach and learn skills that are vital to women sea divers.

women sea divers' tools (taewak, types of mangsari, jonggaehomi, types of homaenggi, bitchang, sosal, joksaeun, shaenun, danahgyeong, bonjoggaenggi, mulgudeok etc.)

In order to carry out their work, the divers use the taewak to remain buoyant after rising to the surface. They also use the mangasari as a container for the sea produce they catch. The containers differ in size and the type of netting depends upon what kind of shells or fish have been procured. The bitchang is used to pluck the abalones. The instrument's size varies according to the topography or type of sea in which they are working. The bonjogaenggi is used as a mark to go back to the abalone that they were not able to pick before. This, too, is a product of ethnic intelligence.

Women Sea Divers' Traditional Clothes and Rubber Clothes (Mulsojunggi, Muljeoksam, Yimeonggeori, Mulsugeon, Kkaburi, Sonbokdak, Ttudaeki, Muljokki, Ppongdol , etc.)

The traditional women sea divers' attire called the 'mulsojunggi' is not only considered durable but efficient and comfortable at the same time.³⁾ It is also quite scientific and physiological. The sides are open which makes it very convenient to put on and take off. It also is flexibly designed to fit various body types. It is functional because it wraps around the waist and chest snugly, keeping one warm. The rubber suits are often worn as underwear. The divers can feel the

water temperature as well and take care of their bodily needs. To avoid the messing up their hair, there are the 'mulsugeon' and 'yimeonggeoni' that are used as a means to repel potential shark attacks.

We are able to grasp the women sea divers' sentiments through the oral traditions of their legends, proverbs, and labor songs that express their feelings and awareness of their community.

The song of the women sea divers is a primitive fishing and laboring song sung by the women when they row the oars themselves. Through this song, we are able to emotionally sense the lifestyles of the island people, their work environments, the Jeju women and the Jeju people. They possess a unique geographical identity. The instinctive desires of humans are vividly expressed through the melody and the narrative. These songs to portray the lives of humans who have overcome extreme hardships. The ecology, awareness, premonitions, and life experiences are expressed eloquently through the livelihood stories of the women sea divers. In such stories, they realize the natural philosophical principles inherent in their work. The ecological nature of the sea produce and accumulation of knowledge have inspired guiding principles in their lives.

The Jeju women have retained to their shamanistic faith to protect themselves. The work of the women sea divers is quite dangerous. They are always faced with tragic accidents that sometimes lead to death. Shamanism has armed them with spiritual strength and presided over their basic mental world which was relatively unpolluted.

- Keywords: Women Sea Divers, Folkknowledge, Fisheries Cooperatives, Shamanism, Iyeodo, song of the women sea divers